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이민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BK21 연구조교)

[요약]

본 연구는 가족을 단위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및 연구 현장에 적합한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2001년 개발된 「가족관계척도」를 도구로 하여, 이론적, 논리적 고찰을 통한 액면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기혼자 집단 분석을 통한 실증적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액면타당도를 위한 내용분석 결과 정서친밀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 수용존중요인은 공감, 인정책임요인은 자율성과 유연성의 개념으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타당도를 위한 분석결과는 구성타당도, 기준관련 타당도, 변별력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누적설명량은 54%,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은 0.45 이상의 안정된 부하량을 보여주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모형에 대한 부합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준관련타당도 중 예측타당도를 위한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결과, 가족관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가족스트레스 상·하위집단에서 유의미한 판별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동시타당도를 위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가족관계척도」의 설명변인으로 부부($r=.54$)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r=.64$)이 가장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도 가족관계 수준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족관계척도와 유의한 수렴타당도를 설명하였고, 신체적 건강 수준은 가족관계 수준과 미약한 관계를 보여주어 가족관계척도의 판별타당도를 보여주는 근거로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척도의 변별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 결혼형태, 경제적 수준, 학력에 대해 「가족관계척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통해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기혼자 집단에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이 확보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양한 기준관련 타당도와 인구사회학적 변별력을 통해 타당도의 일반화를 높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처음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연구 및 실천현장에서 사회측정도구(sociometric)로 활용되는데 있어 보다 실증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가족관계척도, 가족관계, 교차타당성, 타당도

*이 연구는 2002년도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 가버넌스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음.

1. 서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현장 및 연구에서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가족의 관계적 기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에 대한 관심은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족 사정 도구 및 소사 도구 개발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원조하는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의 더 나은 측정과 활용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수준 인식의 여러 가지 차원을 추론하는 척도가 국내에서도 개발되어 왔다. 가정학이나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가족관계, 가족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김혜숙(1993)의 가족관계신념 척도를 비롯하여, 유영주·어은주(1995), 장선옥(1995), 지영숙·이영호(1998) 등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이들 도구들은 주로 한국 가족내 가치관, 결속력, 권위, 위계, 정서표현, 신체 및 정신건강도, 가족내·외적 자극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이 도구들은 가족에 대한 너무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고자 할 뿐 아니라, 도구 개발과정 외 다른 집단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거치지 않은 채 임상 및 연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측정 도구 개발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가족기능 및 가족적응 등에 관한 외국의 척도들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는 타당도 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외국척도의 활용에는 문화적인 가족 개념 및 기능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당도 검증 연구 노력이 부족하여 척도활용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외국의 번안 척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단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한국인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토대로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도구(양옥경, 2001)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가족관계척도」로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 단위로서의 가족내 구성원들간 관계에 대해 가족원 개인이 평가하는 도구이다. 가족관계성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는 3개 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을 위해 2000년에 실시된 가족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고, 가족건강 및 가족기능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을 참고하여 척도 예비 문항을 구성한 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2001년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도구들에 비해 문항이 간결하고 측정이 용이하여 가족을 다루는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 임상 현장과 연구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도구로 1차 검증된 바 있다(양옥경,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개발된 이 「가족관계척도」가 척도의 기본요소인 단순성, 효율성, 객관성을 고려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자 및 가족에게 반복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계속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타당도 검증 연구는 타당성(validation)연구와 타당도(validity)연구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검증을 모두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교차 타당성 검증만을 보고자 하는데, 이는 이미 척도 개발 당시 반복타당성(recursive validation)을 통해 검증된 바 있으므로(양옥경, 2001), 여기서는 다른 집단에도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증하는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검증만을 하고자 한다(Heller, 1976:424; 정대연, 1997:94). 다음으로 척도의 활용을 위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밟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계척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요소, 도구의 성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족관계척도」의 이론적 기반을 재확인하여 익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둘째,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의 스트레스나 부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관련변인이 주는 영향에 대한 변별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실증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를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척도」가 다양한 대상집단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가족을 단위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및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측정도구(sociometric)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1) 가족관련 측정도구

가족적응, 가족건강도, 가족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오랜 기간동안 서구의 가족연구자들은 전반기 평가도구 및 자기보고 도구의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척도들이 <표 1>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Olson 등(1985), Epstein 등(1982), Beavers 등(1985)의 척도가 한국에 소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Olson 등(1985)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측정하고자 FACES II와 III을 개발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가족응집성 측정 16문항과 적응력 측정 14문항으로 되어있다. Epstein 등(1982)은 가족의 정서적 반응성(4문항), 적극적인 가족문제해결(5문항), 가족의사소통(4문항),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4문항)를 통해 가족기능을 측정하고자 FOAD를 개발하였으며, Beavers 등(1985)은 자기보고식 가족측정도구(SFI)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Tavittar. 등(1987)이 개발한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갈등, 가족근심, 가족 의례/지원을 구분하여 가족기능정도를 측정하는 총 40문항의 FFS가 있다. 또한 Hoffman(1984)은 가족의 독립성을 측정하고자, 가족의 기능, 태도, 정서, 갈등의 4개 하위척도들로 이루어진 69문항으로 된 PSI를 개발하였다. 이들 척도들은 다양한 인구집단과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까지도 높은 타당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에서는 이상에서 소개한 가족관련 척도들을 포함하여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들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국내에 알려져 있으면서도 본 연구의 척도의 측정 영역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들뿐만 아니라 국한하였으며 28개의 외국개발 척도들과 4개의 국내개발 척도가

이에 해당되었다.

〈표 1〉 가족관련 척도목록

no	척도명	제작자	연도	참고
1	Family Functioning Index	Pless & Satterwhite	1973	
2	Family Evaluation Scale	Lewis, Beavers, Gosset & Phillips	1976	㉠
3	Family Strength Inventory	Stinnett & Sauer	1977	
4	Family Life Questionnaire	Guernsey	1977	
7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	Feetham	1982	
8	Family Assessment Measure	Skinner et al.	1985	
9	Psychological Scale of Independence	Hoffman	1984	㉡
10	Family Of Assessment Device	McMaster	1993	㉢
11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dwin & Bishop	1983	㉣
12	Family Responsibility Index	Bjorkquist	1984	
1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Olson, Porter & Lavee	1985	㉤
14	Family Strength Scale	Olson, Larsen & McCubbin	1985	㉥
15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ce Questionnaire	Roelofse & Middleton	1985	
16	Self-Report Family Instrument	Bevears, Hampson & Hulgus	1985	㉦
17	Family Functioning Scale	Bloom	1985	
18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Schumm, Jurich & Ballman	1986	
19	Family Functioning Scale	Tavitian, Green, Lubner, Grebstein & Velicer	1987	㉧
20	Family Awareness Scale	Kolevzon & Green	1987	
21	Family Inventory of Resource for Management	McCubbin & Coeau	1987	㉨
22	Family Hardiness Scale	McCubbin & Thompson	1987	㉩
23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Scales	Antonovsky & Sourani	1988	
24	Family Assessment Scale	Fristad	1988	
25	Family Well-Being Assessment	Caldwell	1988	
26	Family System Functioning	Doane, Hill, Kaslow & Quilan	1988	
27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McCubbin, Olson & Larsen	1991	㉪
28	Index of Family Relations	Hudson	1992	㉫
29	가족관계신념 척도	김혜숙	1993	㉬
30	가족건강성 척도	어은주, 유영주	1995	㉭
31	가족건강사상성도구	장선옥	1996	㉮
32	가정전전도 측정	지영숙	1998	㉯

참고: Fisher, J., Corcoran, K.,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은 「가족관계척도」(2001)개발시 참고한 것.

그러나 국내의 임상 및 연구현장에서 이들 외국 척도 활용에 대한 타당화 및 실용성에 관한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 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는 가족사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한국의 가족관계, 가족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김혜숙(1993), 어은주·유영주(1995), 장선옥(1995), 지영숙(1998)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김혜숙

(1993)의 가족관계신념설문지(BAFRI-K)에서는 총 70문항으로 권위척도, 가족결속척도, 성범위척도, 개인성척도, 정서표현척도의 5개 하위척도(리커트 6점 척도)로 가족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신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경향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우리나라의 가족 연구와 가족 생활교육 및 가족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족의 건강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자기보고식 척도를 제시하였다. 총 34문항, 4요인(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몰입, 가족원의 적응력, 가족 가치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가 이들 가족의 건강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개발되었다. 이상의 척도들은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측면은 제외하면서 가족가치관을 중요 변수로 도입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가족 가치관이외에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측면을 고려한 척도들을 소개하면, 장선옥(1995)은 가족 건강 사정도구 개발을 위해서 가족관계자극, 가족 내·외적 자극, 상황자극 등 가족자극사정도구와 가족자아개념, 가족건강관리양식, 가족기능양식 등 가족적응양식 사정도구를 각각 33문항,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영숙(1998)은 '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를 총 52개 문항, 7개 범주(가정환경 분위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관계/친척, 경제생활, 공동체 생활)로 구성하여 한국의 확대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의 건전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들 척도들은 자기보고의 성격을 갖지만 가족의 내외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척도들로서 가족의 심리, 경제, 신체적 상황을 사정하는 임상적 도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된 양옥경(2001)의 「가족관계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정서친밀 영역 11문항, 인정책임 영역 7문항, 수용존중문항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보고식 응답 방식이며,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이 도구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건강한 가족관계에 대한 자기 측정을 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기존 국내 개발 척도들에 비해 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도구 역시 다양한 인구집단에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관계척도가 가진 3개 하위요인들과 관련변인들과의 변별력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2) 타당도의 개념 및 방법

사회과학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지만, 이들 도구들이 당초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척도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이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척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이다.

척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신뢰도를 검토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타당도는 측정도구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물론 높은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높은 평기도구는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이에 비례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는 타당도의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반면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타당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황정규, 1999: 125) 때문에 타당도 검증은 신뢰도와는 별도로 매우 중요하다. 타당도(Validity)란 한 측정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나로 정의된다. 이는 무엇을 재고 있는나의 개념으로, 측정의 진실성(truthfulness) 혹은 정식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황정규, 1999: 96-97). 타당도는 기준(criteria)의 개념이 수반되어 '무엇에 비추어 본' 타당도를 말하게 되는데, 타당도의 구분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에는 내용관련 타당도(content-related validity), 구성관련 타당도(construct-related validity),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로 나누고, 기준관련 타당도에 예측타당도와 동시타당도를 포함시켜 구분하고 있다(NCME, 1985; 성태제, 2000 재인용).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즉 내적 기준에 비추어보는 타당도이다. 척도가 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범위, 성질, 수준에서 잘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척도가 적절한가, 문항내용이 중요한 것을 보편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포괄하고 있는가,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한가, 문항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내용타당도는 결정된다. 내용타당도는 내용의 논리적 분석에 의거하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부르며, 추상적 개념의 정의에 기초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기 때문에 정의에 의한 타당도(validity by definition)라고 하기도 한다(황정규, 1999: 99). 척도의 문항과 요인이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가(성태제, 2000)의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개념 고찰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분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척도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아니한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측정했을 때, 그것을 과학적 개념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성(construct)은 척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짐작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적 모형이다. 구성타당도는 측정 자체보다는 기준(준거)의 확인과 이론 형상이 중심이 되는 타당도이다(박도순·홍후조, 2002). 척도가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척도의 문항들의 관계가 척도 구조의 가설을 지지하고, 측정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성태제, 2000). 이를 위해 주로 요인타당도(factorial validity)가 사용된다(황정규, 1999: 106). 요인타당도는 어떤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 및 검사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factors)의 내용과 구조를 밝히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중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는 척도가 피검사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예언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타당도의 기준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행동특성'이 되고, 척도가 목적하는 외적 기준을 정확히 높게 예측하는 힘이 예측타당도가 된다. 선행 검사 X와 기준 Y와의 상관계수(회귀계수)로 분석한다. 이때 두 변인간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X와 Y가 같은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혹은 동시에 X와 Y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 예측타당도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Ebel(1961; 황정규, 1999 재인용)은 비록 비슷한 속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그것이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을 때에는 예측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타당도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개념을 통해 척도가 측정한 X가 예측하고자 하는 Y를 설명해 내는지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황정규, 1999; 박도순·홍후조, 2000). 측정타당도는 회귀분석, 판별분석, 다변량분석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기준관련 타당도 중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척도값 X와 동시에 측정된 Y가 ‘후정도로 일치하느냐로 판단한다. 시간적으로 후에 측정할 수도 있고, 현재 동시에 측정할 수도 기준의 성질이 예측에 있지 않고 공통관계 또는 공통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외형상의 분명히 관련이 있을 듯한 기준 뿐 아니라 관련이 먼 듯한 기준과도 필요에 의해 상관관계를 때 척도와 유사한 구조를 측정하는 도구는 수렴의 근거(수렴타당도)를 제공하고, 척도와 다른 측정하는 도구는 판별의 근거(판별타당도)를 제공한다(성태제, 2000).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다루어진 기준 척도들 외에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준에 따른 척도들의 변량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한다. 척도의 개발과 일반화 검증 과정에서 다양하고 유의미한 기준 도구들의 활용은 척도의 실제적 의미를 풍부히 해주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황정규, 1999:102).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표 2>와 같이 「가족관계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로 하였다. 먼저 전문가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논리성을 검토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보았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동시타당도를 위해서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2〉 '가족관계척도' 타당도 검증 분석방법

번호	구분	방법	정의	본 연구에서의 방법
1	액면타당도 (content validity)	이론적, 논리적 개념타당도	척도 문항과 요인이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가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검토
2	실증타당도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탐색적 요인타당도 (empirical factorial validity)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탐색적 요인분석
3		확인적 요인타당도 (Confirmatory factorial validity)	척도의 문항들의 관계가 척도 구조의 가정을 지지하고, 측정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	확인적 요인분석
4		예측타당도 (predictive validity)	척도가 그 결과로서 조사대상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는가	회귀분석; 판별분석
5		기준관련타당도 (criterion-related validity)	척도와 기준변인들을 동시에 수집한 후 공동된 요인이 있는가	상관관계분석
6		-수렴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척도와 유사한 구조를 측정하는 도구는 스럽의 근거를 제공하는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7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척도와 다른 구조를 측정하는 도구는 판별의 근거를 제공하는가	상관관계 분석
8	척도 변별력		척도가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관련성을 보이는가	변량분석

참고: Allen Rubin and Earl Babbie,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3. 내용타당도: 가족관계 개념 및 요소

가족체계내의 관계적 개념에 초점을 둔 「가족관계척도」는 가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상태와 과정으로서의 건강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양옥경, 2001). 가족체계내의 성원들간의 내부적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Walsh, 1998), 가족간의 정서친밀관계, 인정책임관계, 수용존중관계의 요인들을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가족관계척도」의 문항과 요인이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가의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개념 고찰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 평가를 위하여 가족관련 학자 3명 및 임상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도구 모직의 적합성 파악을 위한 '가족 관계'의 개념(범위, 성질, 수준 등)과 도구 내용에 대한 포괄성 파악을 위한 각 문항들의 세부 내용(주제, 어휘, 유형 등)에 대한 견해를 연구자가 수집하여 심층적인 검증 실시한 결과, 충분한 개념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개념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이론적, 논리적 고찰을 위하여 선행연구들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척도가 가지는 3개 하위요인들은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찾을 수 있었으며, 각 요소들에 대한 가족내의 상호작용 과정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관계의 성서친밀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서표현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표현은 다양한 범위의 정서표현이 상황적 맥락과 자극에 맞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적절해야 한다.¹⁾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welfare emotion)은 정서적 반응 양식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친애, 따뜻한, 온화함, 지지, 사랑, 위안, 행복, 기쁨 등을 의미하는 요소이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지적인 가족 환경 내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서적 교류에 참여하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Collins et al., 1999). 둘째, 건강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요소로서 인정책임관계의 유지를 위한 자율적(autonomous)이고 유연한(flexible) 가족 상호작용이 중요한 특징이 된다. 자율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람들이 가진 주관적인 견해나, 독특함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자신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나 양가감정, 의견의 불일치 등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Beavers, 1985; Collins et al., 1993). 또한 유연성은 가족 안팎에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대해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책임있는 관계 특성을 말한다(McMaster, 1993). 셋째, 가족관계의 수용 및 존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empathy) 노력을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 공감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의 정도, 개별 가족 구성원의 흥미와 활동에 부여하는 특별한 가치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가족 관계의 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심(empathetic involvement)을 통해 발전되며(McMaster, 1993).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활동과 관심영역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관련척도 개발 과정에서 건전가정, 건강한 가족이라는 명명하에 가족성원과 가족체계 내외적 건강, 즉 분제없음을 가족관계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지영숙(1996)은 '건전가정'이라는 표현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으로서, 건실하고, 완전하고, 건강하고 병이 없으며, 의지가 확고하여 중용을 잃지 않은 상태로 '건전한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유영주(1999)는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에 대해,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대화기술,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1) 건강한 가족의 정서표현은 Welfare Emction과 Emergency Emotion[분노(anger), 두려움(fear), 슬픔(sadness), 실망(disappointment), 우울(depression) 등]의 측면의 영역에서 모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McMaster, 1993).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관계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선강한 가족관계 수준은 가족의 전체성(wholeness)에 초점을 두고 가족체계 내부의 정서적 관계적 요소들—정서친밀관계, 인정책임관계, 수용존중관계—를 통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내용타당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실증타당도

1)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가족관계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대 60대의 기혼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응답식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혼여성 조사는 2001년 6월 10일~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기혼남성 조사는 2001년 10월 9일~11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을 기혼자로 한정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이 변화한다고 보고, 대학생 집단에 비해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추출의 방법으로는 체계적인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의 방식을 병행하였다. 기혼여성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서울 지역의 25개 구를 한 장의 남·북, 그리고 이를 다시 각각 동·서로 구분한 뒤, 각 2개 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8개 구에 속한 동을 다시 무작위로 각 2개씩 추출하여 총 16개 동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역을 토대로 선업주부와 취업주부를 50%씩 할당 표집하였다. 67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기혼남성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기혼여성 조사에서 할당 추출된 8개 구에서 거주(또는 취업)하는 기혼남성들을 '서울시 직업별 취업 통계자료'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사무직, 생산 및 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그리고 실직 및 무직 등 직종²⁾별로 비례 할당 표집을 실시하였다.³⁾ 6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576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전체 자료 중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1,071부였다.

2) 각각의 직종별로 세부 직종을 다시 나누어 총 18개에 대해 직종 의료인, 교수, 연구원, 성직자, 일반 회사원, 교직원, 자영업자, 경영주, 판매원,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 기술공, 생산직, 실직 및 무직, 그리고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3) 2001년 1/4분기 서울시 통계 직업별 취업(남성) 비율인 사무직 및 회사원 27.2%, 전문직 16%, 판매 서비스 18.7%, 생산기술 및 노무직 18.2%, 자영업, 회사경영 등 19%, 기타 1%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표집을 하였다.

(2) 「가족관계척도」

「가족관계척도」는 한국의 가족이 가족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양옥경(2001)이 개발한 것이다. 정서친밀, 인정책임, 수용존중의 3개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정서친밀요인은 '우리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우리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정책임요인은 '우리가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등 7문항으로 되어 있다. 수용존중요인은 '우리 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우리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93이다.

(3) 「가족관계척도」 타당도 검증 도구

① 가족스트레스 척도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가족복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데(김정옥, 1995), 가족만족감이 부정적일수록 가족 문제에 대한 긴장(가족 스트레스)이 높아진다(김명자, 1992)는 문헌연구결과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척도를 타당도 검증 도구로 선택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척도는 McCubbin, H., Thomson, A. and Elver, K.(1993)의 가족스트레스척도(Family Distress Index)를 토대(McCubbin et al., 1996:783)로 작성된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많다~전혀 없다)로 되어 있고, 신뢰도(α)는 .81이다.

② 부부간 의사소통 척도

부부간의 갈등이 가족결합의 취약화와 가족의 결속력에 중요한 설명 변인이 된다(박영옥, 1986; 백미화, 1990)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부간 의사소통 척도를 타당도 검증 도구로 선정하였다. 부부관계간 의사소통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으로 Marsha & Margaret(1999)이 개발한 관계사정척도(the Relationship Assessment Scale)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신뢰도(α)는 .87이다.

③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가족관계—응집성과 적응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전귀연·최보기, 1993:1995; 조은경·서병숙, 1994; 김진희, 1989)는 연구결과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를 타당도 검증 도구로 선택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Fine, M.A., Moraland, J. and Schewabel, A.(1983)가 제작한 부모-자녀관계척도(Parent-Child Relation Scale)를 기초로 수정 보완된 것이며 5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신뢰도(α)는 .86이다.

④ 건강관련 문항

가족관계가 정서적 건강, 가족생활만족도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Lavee & Olson,

1991)에 근거하여, 삶의 만족 수준, 정신건강 수준, 그리고 신체건강 수준 등을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각 1개씩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형태, 가족유형, 학력, 경제수준을 선택하였다.

(4) 분석방법

「가족관계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내적합치도와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실증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구성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변별력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기준관련 예측타당도는 기준 변인인 가족스트레스와의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동시타당도는 기준변인인 부부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삶의 만족, 정신건강, 신체건강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척도」의 변별력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AMOS 4.0, SPSS WIN 11.0 version을 사용하였다.

2) 연구 결과

(1) 분석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의 특성은 부록 <표 1>과 같다. 남성은 47.5%이고, 여성은 52.5%이며, 평균 연령은 41세로 23세부터 78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30·40대가 68.4%를 차지하고 있다. 초혼이 929명(84.5%)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혼 69명(6.3%), 이혼 33명(3.0%), 사별 40명(3.6%), 그리고 재혼 20명(1.9%)이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75명(6.8%), 고졸 284명(25.9%), 전문대졸 183명(16.7%), 대졸 438명(40.0%), 그리고 대학원 이상 115명(10.5%)으로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313명(28.6%)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 109명(10.0%), 판매서비스직 83명(7.6%), 생산기술직 및 노무직 172명(15.7%), 자영업 및 회사경영인 71명(6.5%), 실직 및 무직 24명(2.2%), 그리고 기혼여성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부가 263명(24.0%), 기타 59명(5.4%) 등이다.⁴⁾ 이들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은 100만원 미만 117명(12.0%), 100만원-200만원 미만 317명(32.4%), 200-300만원 미만 282명(28.8%), 300만원-500만원 미만 240명(24.5%),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22명(2.2%)이다.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남편과 부인으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151명(14.2%),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속한 응답자가 695명(65.2%),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3세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가 142명(13.3%) 등으로 나타났다.

4) 기혼 남성 표본의 할당 표집 후 연구에 사용한 표본 비율은 사무직 및 회사원 30.5%, 전문직 15.9%, 판매서비스 7.7%, 생산기술 및 노무직 24.5%, 자영업 등 18.7%, 실직/무직 2.8%으로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 비율이 기준 비율인 18.7%에 미달하여 비례 표집의 의미를 다소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는데, 이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가 줄어들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추세를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척도」 및 주요 척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관계척도」의 평균은 3.92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3.93으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요인별로 보면 정서친밀요인 3.75, 인정책임요인 4.33, 수용존중요인 3.78로 인정책임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양옥경, 2001)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3〉 「가족관계척도」의 평균

	문항 번호	문 항	평 균		전체
			남	여	
정서 친밀 요인 (11개)	1	우리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된다.	3.6742	3.7172	3.6967
	2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잘 알고 있다.	3.5653	3.8000	3.6878
	3	우리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7701	3.7839	3.7773
	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8659	3.8323	3.8487
	5	우리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3.5270	3.5026	3.5143
	6	우리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3.9439	3.8861	3.9136
	7	우리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3.4440	3.4505	3.4474
	8	우리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3.9142	3.8718	3.8927
	9	우리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3.8327	3.8484	3.8409
	10	우리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3.8545	3.8216	3.8374
	11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3.6985	3.7633	3.7323
요인 1	정서·친밀요인 (1번-11번)		3.7346	3.7578	3.7468
인정 책임 요인* (7개)	17	우리가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4.1754	4.1541	4.1643
	12	우리 가족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4.4307	4.4342	4.4325
	13	우리 가족은 서로 무시한다.	4.3084	4.2256	4.2652
	14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 중 한사람을 탓한다.	4.6430	4.6655	4.6548
	16	어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서로 탓한다.	4.3489	4.3396	4.3441
	18	우리가족은 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4.2710	4.4124	4.3447
	15	우리가족은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4.0619	4.1732	4.1201

〈표 3〉 계속

요인 2	인정·책임요인 (12번-18번)	4.3201	4.3296	4.3251
수용 존중 요인 (6개)	19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3.8352	3.8718	3.8543
	20 우리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3.9026	3.8853	3.8936
	22 우리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3.8897	3.8670	3.8779
	23 우리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3.7757	3.7033	3.7379
	21 우리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3.9009	3.8782	3.8891
	24 우리 가족은 규칙이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다.	3.4045	3.3750	3.3891
요인 3	수용·존중요인 (19번-24번)	3.7851	3.7683	3.7763
전 체	가족관계(1번~24번)	3.9175	3.9255	3.9238

* 인정·책임요인의 7개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음.

가족관계 관련 변인으로 측정한 가족스트레스, 부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삶의 만족 정도, 정신 및 신체건강 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가족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89점으로 중간값 이하로 나타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평균은 3.69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은 4.01점으로 비교적 높은 의사소통수준을 보였다. 삶의 만족 성도는 3.45점, 정신건강 수준은 4.07점, 그리고 신체건강 수준은 3.8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관련변인 척도의 평균

척도/문항	평균		전체
	남	여	
가족 스트레스	2.7607	3.0126	2.8928
부부간 의사소통	3.7494	3.6353	3.69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0056	4.0115	4.0086
삶의 만족	3.4575	3.4516	3.4544
정신건강	4.1170	4.0341	4.0735
신체건강	3.9302	3.7342	3.8272

(3) 신뢰도 분석결과

「가족관계척도」는 이미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준 바 있다 (양옥경, 2001). 기혼자집단에서도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알파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3개 하위영역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최저 .8496부터 최고 .9370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와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정서천밀 요인이 .9370으로 가장 높고, 인정 책임 요인이 .8496, 수용존중 요인이 .880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934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내

학생 대상 연구결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5〉 「가족관계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대학생 (2001)	기혼자집단		
		전체	여성	남성
가족관계(전체)	.9305	.9340	.9378	.9298
정서·친밀요인	.9253	.9370	.9412	.9322
인정·책임요인	.8271	.8496	.8753	.8866
수용·존중요인	.7824	.8801	.8753	.8866

문항-총점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가족관계와 각 하위 24개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r = .40 \sim .75$ 사이를 나타내어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부록 〈표 2〉 참조).

(4) 타당도 분석결과

타당도 분석에서는 기혼남성과 여성을 '기혼자집단'으로 합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가족관계척도」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설명분석과 신뢰도 검증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통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① 구성타당도

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가족관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24개 문항 3개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척도개발과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 회전법(Oblique rotation promax)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을 위해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한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와 동일한 문항들로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6〉과 같이 제1요인은 전체 변량의 39.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2요인은 9.93%, 제3요인은 4.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요인 전체의 설명력은 54.52%로서 대학생 집단에서의 48.97%(양옥경, 2001:133)보다 5%이상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 요인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부하량은 0.45~0.8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6〉 「가족관계척도, 3요인분석 결과 : 최대우도법, 사각회전 후

	Factor			Communalities
	1	2	3	
RELAT8	.832	.346	.587	.531
RELAT10	.821	.390	.608	.360
RELAT11	.807	.320	.564	.576
RELAT5	.803	.308	.551	.602
RELAT9	.799	.337	.592	.646
RELAT4	.775	.338	.569	.565
RELAT3	.758	.337	.546	.463
RELAT6	.751	.317	.548	.692
RELAT1	.728	.300	.526	.641
RELAT7	.673	.194	.420	.679
RELAT2	.599	.242	.393	.651
RELAT14	.343	.813	.353	.582
RELAT16	.313	.783	.349	.735
RELAT13	.333	.745	.337	.515
RELAT15	.195	.704	.253	.622
RELAT12	.251	.601	.286	.361
RELAT17	.224	.567	.258	.556
RELAT18	.263	.445	.239	.661
RELAT21	.639	.398	.867	.505
RELAT20	.586	.347	.856	.613
RELAT23	.615	.404	.781	.322
RELAT19	.536	.270	.759	.207
RELAT22	.525	.371	.715	.755
RELAT24	.329	.244	.495	.247
구분	영역	문항수	고유치	누적설명량(%)
요인 1	성서·전일	11	9.536	39.734
요인 2	인정·책임	7	2.383	49.662
요인 3	수용·존중	6	1.166	54.520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학생집단을 통해 얻은 「가족관계척도」 모형이 기혼자집단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어, 3개 요인 구조는 대학생, 기혼자 집단의 건강한 가족관계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요인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얻은 모형을 다른 표본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이 모형이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4개 측정 변수가 3개의 이론변수(잠재변수)를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측정변수를 해당되는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했으며 잔차들간에는 모두 상관관이 없고 3개 요인들간에는 상관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관계척도의 3개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는데 자료가 되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이 〈표 7〉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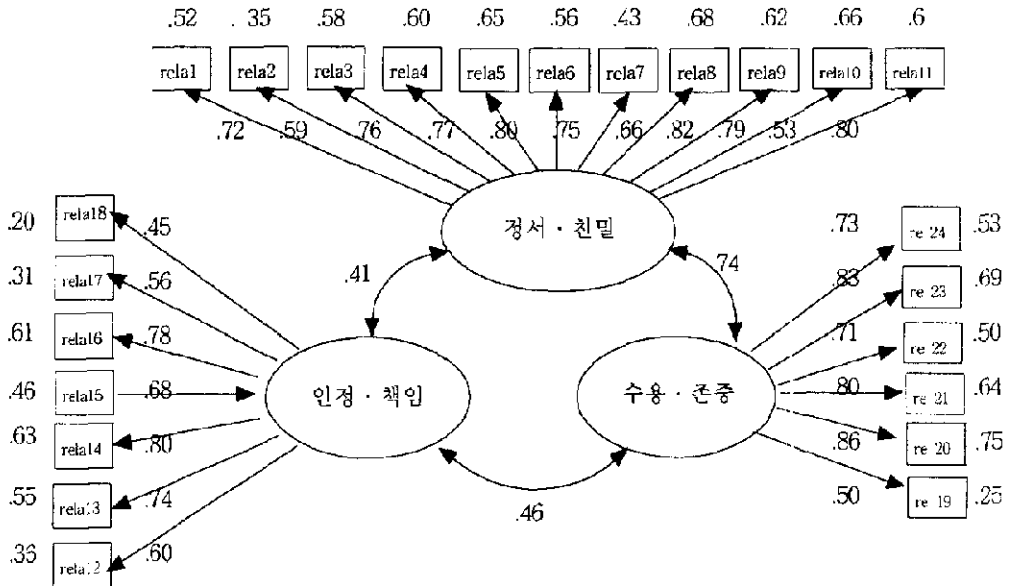
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부합지수, 조정부합지수, 원소간 평균차이, 표준부합지수, 비표준부합지수를 개발 당시의 대학생 집단값과 기혼자 집단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자료의 크기에 영향받는 χ^2 에 의한 적합도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GFI, AGFI, RMR 등 모형 부합지수들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 주었으며, 대학생 집단보다 기혼자 집단에서 적합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가족관계척도」 교차타당화에 사용된 요인구조 검증 모형 부합지수

가족관계척도	χ^2	df	CMIN/DF	p	GFI	AGFI	RMR	NFI	NNFI/CFI	RMSEA
대학생집단(2001)	974.047	249	3.912	.000	0.910	0.891	0.041	0.906	0.928	0.059
기혼자집단	1173.999	249	4.715	.000	0.913	0.895	0.029	0.926	0.940	0.057
적합도 기준값	.	.	3이하	0.05이상	0.9이상	0.9정도	0.05이하	0.9이상	0.9이상	0.08이하

참고: 김계수, 2002.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p. 353.

(GFI:기초부합지수 AGFI:수정부합지수 RMR:원소간 평균차이 NFI:표준부합지수 NNFI:비표준부합지수 CFI:비교부합지수 RMSEA:근사평균오차계급)



□ 안의 숫자는 척도의 문항번호; □ 밖의 값은 측정오류(error variance); → 위의 값은 상관계수 값 및 계수값; ※ 모든 계수값과 상관계 값이 $p < .001$ 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 표시를 하지 않았음.

〈그림 1〉 「가족관계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모형

구체적으로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은 측정모형의 표준추정치와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3개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41~.74로 나타났고, 각 측정변인들의 잠재변인에 대한 부하값은 .45~.86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이론변인들을 측정하는데 구성 타당도와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5)

<표 8> 「가족관계척도」 이론구조 검증6)

가족관계척도		Estimate	S.E.	C.R.	Standard
relat 1 <-----	정서·친밀	1.0000			0.722**
relat 2 <-----	정서·친밀	0.862	0.044	19.603	0.593**
relat 3 <-----	정서·친밀	1.041	0.041	25.345	0.761**
relat 4 <-----	정서·친밀	1.079	0.042	25.743	0.773**
relat 5 <-----	정서·친밀	1.221	0.046	26.825	0.804**
relat 6 <-----	정서·친밀	1.046	0.042	24.827	0.746**
relat 7 <-----	정서·친밀	1.025	0.047	21.813	0.658**
relat 8 <-----	정서·친밀	1.105	0.040	27.532	0.824**
relat 9 <-----	정서·친밀	1.083	0.041	26.339	0.790**
relat 10 <-----	정서·친밀	1.127	0.042	27.160	0.814**
relat 11 <-----	정서·친밀	1.140	0.043	26.649	0.799**
relat 12 <-----	인정·책임	1.000			0.730**
relat 13 <-----	인정·책임	1.018	0.037	27.460	0.832**
relat 14 <-----	인정·책임	0.881	0.038	23.208	0.707**
relat 15 <-----	인정·책임	1.014	0.038	26.400	0.800**
relat 16 <-----	인정·책임	1.083	0.038	28.547	0.865**
relat 17 <-----	인정·책임	0.723	0.044	16.392	0.504**
relat 18 <-----	수용·존중	1.000			0.598**
relat 19 <-----	수용·존중	0.985	0.052	19.083	0.742**
relat 20 <-----	수용·존중	1.162	0.058	19.927	0.796**
relat 21 <-----	수용·존중	0.758	0.042	17.973	0.679**
relat 22 <-----	수용·존중	1.063	0.054	19.927	0.780**
relat 23 <-----	수용·존중	0.778	0.050	15.573	0.560**
relat 24 <-----	수용·존중	0.680	0.052	12.979	0.448**

- 5) 구조방정식을 통해 요인구조에 대한 판별타당도 검증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도구들이 다른 구조를 측정할 때 두 구조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다른 도구들을 통해 구조모형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즉, 측정도구들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면, 판별타당도는 증명되는 것이다(Hatcher, 1994:332).
- 6)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도구들이 같은 구조를 측정할 때, 이 다른 도구들로부터 원 점수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의 결과의 상관관계가 .70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면 서로 다른 도구와 방법이라도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구조방정식)의 요인부하값에 대한 t-test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요인부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표준오차의 두 배 이상 값이라면), t-test는 유의미하게 되며, 모든 요인들이 같은 구조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atcher, 1994:33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값(estimate)은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CR(Critical ratio)은 t값과 유사한 것으로 각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 < .05$ 에서 각각역인 1.96과의 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할 수 있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값이 측정오차의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척도」의 이론구조는 부합도가 높은 모델로 입증되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활용됨에 있어서 구성타당도가 안정적임을 검증해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② 기준관련타당도 : 예측타당도

「가족관계척도」가 실제 가족관계 수준을 설명해주고 가족내의 긴장/문제가 심한 집단과 약한 집단을 변별해 준다면 이 척도의 예측력이 검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수준(예언변인)이 가족내 문제 수준, 즉 가족스트레스 수준(기준변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가. 단순 회귀분석

「가족관계척도」가 기혼자의 가족 내 문제 수준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문제수준을 반영하는 가족스트레스 점수를 「가족관계척도」의 총점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 수준 점수는 〈표 9〉에서 보여주듯이 가족스트레스를 $F=155.155$, 유의수준 $p < .001$ 에서 12%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따라서 척도 타당화 과정을 통해 검증된 3요인 모형의 「가족관계척도」는 실제 가족 어려움을 반영하는 가족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관계 수준이 가족스트레스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12%의 설명력은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가족관계 하위 요인별로 보면, 정서·친밀요인은 8.3%($F=102.659$, $p < .001$), 수용·존중요인은 6.1%($F=73.575$, $p < .001$), 인정·책임요인은 9.9%($F=124.809$, $p < .001$)로 가족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7) 가족관계수준과 가족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r = -.348$ 로 나타나 두 척도가 서로 독립적임을 증명하였다.

8)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스트레스 하위 문항별로 가족관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12%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관련 경제 스트레스, 가족내 자녀양육스트레스, 본가 또는 처가관련 스트레스 문항에서 가족관계수준이 약 6%~4%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가 또는 처가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은 한국 가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가 동거하고 있는 핵가족에 한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확대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관계척도」값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가족스트레스	β	constant b(se)	F	adj R ²
독립변수 : 가족관계	-.348(.030)***	4.363(.119)	155.155***	.121
정서·친밀요인	-.289(.024)***	3.808(.092)	102.659***	.083
수용·존중요인	-.248(.024)***	3.669(.092)	73.575***	.061
인정·책임요인	-.316(.028)***	4.243(.122)	124.809***	.099

*** p<.001

나. 판별분석

예측타당도 검증의 다른 한 방법인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예측변인)가 가족스트레스(기준변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지(박광배, 2000; 정대연, 1997)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두 집단의 분류는 가족스트레스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하위 25%에 속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점수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사례는 343명은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으로, 하위 25%에 속하는 사례 299명은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사례 수는 642명인 전체의 56.8%이었으며, 「가족관계척도」의 총점 평균값은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0〉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분류

가족스트레스 점수	사례수	가족관계 평균(표준편차)
상위 25%	343	4.1640(.5127)
하위 25%	299	3.6725(.5817)
전체	642	3.9351(.5981)

분석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410이었고, 유의도는 Wilks's L=.832, X²=117.837(df=1, 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판별함수에 의한 '가족관계 수준이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최대한 구분하는가'라는 가설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은 642개 사례로부터 수집된 「가족관계척도」변인이 가족스트레스 상·하위 집단을 어떻게 분류시켜 주는가에 관한 분류화 절차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 결과,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중심점은 .419, 높은 집단의 중심점은 -.481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 72.4%,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 59.2%를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류적중률은 최대 우연기준치인 50%보다 높은 66.3%로 나타남으로써,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판별함을 확인하였다.

〈표 11〉 「가족관계척도」의 가족스트레스 수준 판별분석의 분류화 절차 결과

	빈도(%)	「가족관계척도」가 예측한 가족스트레스 분류 집단		전체사례수	집단중심점
		가족스트레스 낮은 집단	가족스트레스 높은 집단		
교차분석집단	가족스트레스 낮은 집단	249(72.4%)	95(27.6%)	343(100%)	.419
	가족스트레스 높은 집단	122(40.8%)	177(59.2%)	299(100%)	-.481
분류정확빈도(%)		426(66.3%)			

이상으로 회귀분석, 판별분석을 통한 「가족관계척도」의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예측타당도는 검증되었다고 하겠다.

③ 기준관련타당도 : 동시타당도

가. 상관관계분석

「가족관계척도」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 관계성이 가정된 다른 심리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양옥경, 2001)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부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삶의 만족 수준, 정신건강 수준과 가족관계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보여진다면, 「가족관계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가족관계 수준과 신체건강 수준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가족관계척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가족관계척도」와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삶의 만족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족관계(전체)	.543**	.642**	.338**	.311**	.139**
정서·친밀요인	.555**	.624**	.344**	.313**	.162*
수용·존중요인	.449**	.534**	.268**	.235**	.098*
언정·책임요인	.231**	.326**	.157**	.150**	.036

*p<.05, **p<.01: ※ 분석은 모두 1-tailed로 이루어졌음.

가족관계 수준의 구성원간 관계를 설명하는 부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간의 관계는 각각 .543, .642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가족관계 수준과 삶의 만족 수준 변인간에는 .338,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311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개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족관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건강한 가족관계 수준을 나타내

는 것으로, 「가족관계척도」와 이들 척도들과의 수렴 타당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신체건강 수준과 「가족관계척도」와의 상관관계는 .139로 수렴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 하위요인들에서도 .162~.036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 「가족관계척도」와 신체건강 수준과의 판별타당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다중 회귀분석

이성과 같은 가족관계 수준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에 더하여 한국의 가족관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가족관계척도」의 점수를 준거 변수로 하고, 심리적 변인들을 예측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단계별 가족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준거변수	단계	예측변수	R ² 증가분	adj R ²	F
가족관계	1	부모자녀의사소통	.409	.408	714.775***
	2	부부의사소통	.090	.517	555.171***
	3	정신건강	.010	.527	384.964***
	4	삶의만족	.004	.530	292.610***
	5	신체건강	.000	.530	234.370***

***p<.001

신체건강 변인을 제외한 4개 변인 모두 가족관계 수준을 잘 예측하고 있었고 전체 분산의 총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전체 분산의 40%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와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두 변인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51.7%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 삶의 만족 변인 역시 p<.001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및 부부간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삶에 대해 만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가족관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척도」가 부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신건강, 삶의 만족 변인과의 관계에서 동시타당도를 보여주고, 가족관계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신체건강 변인의 설명력이 0인 것은 판별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척도의 변별력

「가족관계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이 「가족관계척도」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14>를 살펴보면, 먼저 앞서 기술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의 가족관계 수준이 가장 낮고,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 test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에서는 초혼과 이혼/별거/재혼 등의 형태에서 가족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수준의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p<.1수준에서, 부부 가족 집단이 조부모+손자녀 가족이나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

형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학력에 따른 가족관계 수준의 차이도 중졸이하 학력과 대졸 이상 학력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을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간의 가족관계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20대일수록, 초혼일수록, 부부가족일수록, 대졸이상일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수준

변인		가족관계 (평균)	t/ F값			
			가족관계수준	정서친밀요인	수용존중요인	인정책임요인
성별	남성	3.9157	-.351	-.535	.379	-.259
	여성	3.9295				
연령	20대*	4.0051	3.517**	1.649	4.287**	3.379**
	30대	3.9371				
	40대*	3.8479				
	50대	3.9371				
	60대이상	3.9972				
결혼형태	초혼	3.9566	3.599***	2.777**	3.598***	2.563*
	이혼/재혼 등	3.7619				
가족유형	①부부	4.0462	2.151	1.839	1.636	2.171
	②부부+자녀	3.9134				
	②+남편부/모	3.8927				
	②+부인부/모	4.0195				
	①+형제자매	3.8732				
	기타	3.8155				
학력	중졸이하*	3.7095	4.995**	5.046**	2.742*	2.883*
	고졸이하	3.8784				
	전문대졸이하	3.9145				
	대졸이상*	3.9678				
경제수준	상	4.0902	24.192***	20.428***	15.532***	10.988***
	중	3.9898				
	하	3.7618				

*p<.05, **p<.01, ***p<.001; ※는 Scheffe test 결과.

이상에서의 연구분석과 같이 기혼자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성을 검증한 「가족관계척도」는 개념 타당도, 구성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관련변인간의 변별력 등 모든 검증과정에서 가족복지 실천과 연구를 위한 사회측정도구(sociometric)로서 일반화 가능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및 연구 현장에 맞는 건강한 가족관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측정도구의 개발과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에 개발된 「가족관계척도(Family Relationship Scale)」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족관계척도」는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검증을 통해 기존 자 집단에서도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총 24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가족관계척도」는 내적일치도 및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대학생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 및 안정성, 그리고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또한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 문항-총점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력을 높였으며, 가족스트레스와의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도구로서 증명되는 예측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 「정신건강 수준」, 「신체건강 수준」의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동시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부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삶의 만족 수준」, 「정신건강 수준」과의 정적 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신체건강 수준」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령, 결혼형태, 학력을 추가로 선정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이 같은 분석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통해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및 남성 집단에서도 타당하게, 그리고 신뢰있게 일반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검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양한 기준관련 타당도와 인구사회학적 변별력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혼자 집단에서의 「가족관계척도」의 활용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실증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가족관계척도」의 기혼자집단에 대한 교차타당성이 검증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안정적인 모형으로서 기혼자 집단에서도 척도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가족관계척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심도있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척도가 가져야 하는 단순성, 효율성,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처음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연구 및 실천현장에서 조시도구로서 활용되는데 있어 보다 실증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임상 및 연구현장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한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자 집단의 표본 선정 방법으로 인한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을 8개 지역으로 나눈 뒤, 기혼 여성은 취업과 주부를 각기 50%씩 비비례 할당 표집하고, 기혼 남성은 직종별로 마레 할당 표집하였음에도, 실증타당도 분석에서 「기혼자 집단」으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가족관계수준 및 관련 변인들의 평균값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 취업여성, 취업 남성의 직종별 표본추출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울시에서 할당표집된 기존 여성과 남성 집단에 대해 시의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 혹은 선국의 기존자·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확률표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척도」의 타당도 검증이 요구되며, 나아가 다양한 인구집단과 특수상황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타당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가족관계척도」가 가질 수 있는 측정요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 123-139.
- 김계수. 2002.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득성. 1989. "결혼 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pp. 85-94.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김해숙. 1993. 가족관계신념설문지(BAFRI-K)
- 문현미·민병배. 2001. "상담회기영향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남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3호, pp. 247-264.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박도순·홍후조. 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 성숙진, 유태균, 이선우 공역. 199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성태제. 2000. "타당도에 대한 개념, 정의, 검증방법의 변화와 교육적 함의". 『교육평가연구』, 제3권, 제1호, pp. 1-11.
- 심재권. 2001. "공기업 인력선발 도구의 직무성과 예연타당도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pp. 121-138.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8호, pp. 117-145.
- 유영주. 1993.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 1999. "근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 93-102.
- _____. 이은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 145-156.
- _____. 최희진. 1999.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57-71.
- _____. 1995.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서울: 공보처.
- 이순형. 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관의 관계,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가을호, pp. 545-573.

- 장선옥. 1995. "가족건강 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 서울: 백의출판사.
- 조희선. 1995. "가족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관련변인의 차이". 『사회과학』. 제34권. 제1호. pp. 145-160.
- 지영숙. 199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 281-287.
- _____. 1998. "전통가족교육 사상의 현대적 의미". 『생활과학』.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_____. 이영호. 1996.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 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pp. 77-90.
- _____. 이영호. 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 233-250.
- 최연실. 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 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 159-175.
- 최윤실. 1996. "가족적응력, 응집력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131-145.
- 황정규. 1999.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Beavers, W. R., R. B. Hampson, and Y. F. Hulgus. 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s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Collins, Donald, Catherine Jordan, and Heather Coleman. 1999. *An Intervention to Family Social Work*. F. E. Peacock Publishers, II: USA.
- Epstein, N. B., D. S. Bishop, and L. M. Baldwin. 1982. "The McMaster Model of Family Functioning: A Review of the Normal Family."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
- Fisher, J., and K. Corcoran.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 Hatcher, Larry. 1994.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the SAS System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S Publishing.
- Heller, Peter L. 1976. "Familism Scale: Revalidation and Rev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3): 423-429.
- Olson, D., and J. Defrain.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 Co.
- Olson, D. H., and H. W. McCubbin.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 Olson, D. H., J. Portner, and Y. Lavee.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a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Rubin, Allen, and Earl Babbie.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 Walsh, F. 1993. *Normal Family Process*. NY: Guilford Press.

The Family Relationship Scale : Re-validation

Yang, Ok-Kyung

(Professor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Lee, Min-Young

(Doctoral Candidate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re-validation evalu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Scale (FRS), developed to measure the family relationship in the social work practice. This study aims at re-validating the FRS, developed and validated in by Yang in 2001 for more general utilization. The sample was married males and females residing in Seoul. For Face Validity, th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FRS was re-validated in the dimensions of Love & Caring, Acceptance, and Recognition, positive affection, empathy, and autonomy and flexibility for each area. Internal reliability was .93, and internal consistency among three dimensions was 93%. For Empirical Validity, the Construct validity, the Criterion validity,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were performed. Construct Validity was validated through factor analyses. Communalities for the factor analysis was 54%, and the factor loading for each factor was over .45.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lso confirmed the fitness of the scale. For Predictive Validity of Criterion Validity,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 stress scores became lower as the scores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came higher; the discrimina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mily stress turned low in the group of high scores of family relationship.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Concurrent Validity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 couple communication level ($r=.54$) and a parent-child communication level ($r=.64$).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level also reveal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o prove Convergent Validity. Physical health level revealed a weak relationship with family relationship providing the evidence of Discriminant Validity. Discriminance was also proved by the analysis of variance with demographics. Thus, Cross Validation was confirmed the validation of the FRS through the various analyses with the married population. This study result improved the validity generalization of the Scale and verify the generalized usage of this sociometric scale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Family Relationship Scal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Validity, Cross Validation

부록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 목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연령	평균	41.6세	40.5세	41.0세
	20대	57(10.8)	66(11.5)	123(11.1)
	30대	203(38.3)	208(36.2)	411(37.2)
	40대	140(26.4)	205(35.7)	345(31.2)
	50대	85(16.0)	83(14.4)	168(15.2)
	60대	45(8.5)	13(2.3)	58(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4.9)	49(8.6)	75(6.8)
	고졸	129(24.5)	155(27.2)	284(25.9)
	전문대졸	78(14.8)	105(18.5)	183(16.7)
	대졸	214(40.7)	224(39.4)	438(40.0)
	대학원 이상	79(15.0)	36(6.3)	115(10.5)
결혼상태	초혼	470(89.2)	459(80.1)	929(84.5)
	사실혼	33(6.3)	36(6.3)	69(6.3)
	재혼	10(1.9)	10(1.7)	20(1.9)
	사별	2(0.4)	38(6.6)	40(3.6)
	이혼	9(1.7)	24(4.2)	33(3.0)
	별거	3(0.6)	6(1.0)	9(0.8)
직업	사무직 및 회사원	163(30.5)	150(26.8)	313(28.6)
	전문직	85(15.9)	24(4.3)	109(10.0)
	판매서비스직	41(7.7)	42(7.5)	83(7.6)
	생산기술직 및 노무직	131(24.5)	41(7.3)	172(15.7)
	자영업 및 회사경영(벤처 등)	67(12.5)	4(0.7)	71(6.5)
	전업주부	.	263(47.0)	263(24.0)
	실직/무직	15(2.8)	9(1.6)	24(2.2)
	기타(목사, 군인 등)	33(6.2)	26(4.7)	59(5.4)
수입	100만원 미만	46(9.3)	71(14.6)	117(12.0)
	100만원-200만원 미만	175(35.6)	142(29.2)	317(3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56(31.7)	126(25.9)	282(28.8)
	300만원-500만원 미만	111(22.6)	129(26.5)	240(24.5)
	500만원 이상	4(0.8)	18(3.7)	22(2.2)
가족구성원	부부가족(남편+부인)	77(15.0)	74(13.4)	151(14.2)
	부부와 자녀	336(65.6)	359(64.8)	695(65.2)
	남편의 부모+남편+부인+자녀	53(10.4)	57(10.3)	110(10.3)
	부인의 부모+남편+부인+자녀	17(3.3)	15(2.7)	32(3.0)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1(2.1)	12(2.2)	23(2.2)
	기타	18(3.5)	37(6.7)	55(5.2)

부록 <표 2> 문항-총점간 상관관계

	REL AT1	REL AT2	REL AT3	REL AT4	REL AT5	REL AT6	REL T7	REL AT8	REL T9	REL ATC	REL AT11	REL AT19	REL AT20	REL AT22	REL AT23	REL AT12	REL T13	REL T14	REL T15	REL T16	REL T17	REL T18	REL T21	REL T21	PRS		
RELAT1	1.000																										
RELAT2	.514	1.000																									
RELAT3	.821	.518	1.000																								
RELAT4	.608	.527	.660	1.000																							
RELAT5	.620	.521	.656	.650	1.000																						
RELAT6	.532	.400	.573	.576	.611	1.000																					
RELAT7	.497	.422	.482	.494	.517	.498	1.000																				
RELAT8	.564	.470	.593	.606	.621	.635	.635	1.000																			
RELAT9	.512	.409	.574	.588	.603	.595	.515	.725	1.000																		
RELAT10	.543	.426	.603	.598	.633	.584	.515	.693	.707	1.000																	
RELAT11	.565	.447	.580	.586	.652	.597	.526	.665	.658	.710	1.000																
RELAT19	.373	.276	.416	.421	.431	.440	.353	.418	.429	.446	.436	1.000															
RELAT20	.421	.326	.465	.492	.466	.456	.339	.515	.497	.550	.463	.552	1.000														
RELAT22	.391	.319	.403	.420	.360	.385	.253	.415	.455	.469	.408	.501	.571	1.000													
RELAT23	.467	.328	.509	.496	.516	.494	.367	.502	.498	.541	.504	.559	.628	.641	1.000												
RELAT2	.187	.134	.207	.193	.149	.163	.100	.176	.182	.226	.171	.184	.237	.204	.234	1.000											
RELAT3	.247	.189	.292	.279	.254	.254	.163	.265	.259	.322	.261	.234	.282	.241	.300	.569	1.000										
RELAT4	.237	.198	.251	.280	.287	.268	.159	.281	.276	.324	.262	.204	.287	.321	.323	.470	.536	1.000									
RELAT5	.140	.144	.134	.202	.143	.117	.043	.156	.177	.211	.147	.172	.134	.241	.233	.372	.430	.544	1.000								
RELAT6	.226	.187	.250	.238	.262	.267	.165	.202	.277	.265	.248	.215	.296	.289	.338	.372	.331	.679	.535	1.000							
RELAT7	.150	.223	.175	.163	.173	.158	.100	.175	.195	.227	.219	.176	.134	.136	.249	.340	.409	.411	.419	.430	1.000						
RELAT8	.178	.116	.190	.175	.201	.159	.187	.211	.188	.206	.224	.196	.168	.136	.136	.279	.327	.306	.300	.263	.283	1.000					
RELAT9	.465	.356	.518	.525	.517	.497	.382	.526	.514	.562	.525	.641	.755	.536	.682	.246	.236	.306	.197	.330	.222	.232	1.000				
RELAT24	.358	.165	.230	.266	.260	.256	.211	.259	.286	.319	.284	.271	.411	.356	.480	.141	.144	.131	.144	.223	.175	.140	.410	1.000			
PRS	.692	.573	.733	.737	.747	.738	.608	.760	.744	.779	.746	.640	.709	.643	.741	.428	.532	.543	.408	.541	.415	.383	.755	.474	1.00		